

■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프로젝트 지원
- 회의일시
 - (1차) 2025년 5월 9일(금) 14:00~16:00
 - (2차) 2025년 5월 16일(금) 13:00~16:00
- 회의장소 : (1차) 온라인 ZOOM / (2차) 아르코미술관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순) : 기혜경, 김경훈, 박수진, 이윤희, 이현, 하준수

1. 해당사업의 지원취지

이 사업은 “다양한 장르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시각예술분야 창작공간의 역량 및 생태계 다양성 제고”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지원서를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 심의기준/가중치 및 심의방법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사업 심의대상은 행정결격을 제외한 총 10건이었으며 1차 서류심의, 2차 인터뷰 심의를 통해 최종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1차 심의는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전수 심의 및 채점한 총합을 도출하여 상위순으로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의기준은 공지된 대로 지원자의 활동 이력 및 사업 수행 역량(40%), 사업 목표와 계획의 충실성(30%), 현장 파급력 및 기대 효과(30%)입니다.

3.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 고려사항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6건을 선정하여 공간 운영 주체와 창작 프로젝트 기획자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최종 3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토의 과정을 통해 공간을 통해 시민, 관객과 공유, 교감하고자 하는 예술적, 시의적 가치, 그러한 관념적 개념을 구체적인 창작물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 실현 계획, 그리고 이를 사업 기간 내에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완수할 수 있는 수행력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을 고루 균형 있게 제시한 지원서 중, 프로젝트의 주제와 실현성 사이에 가치적, 실천적, 수행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되어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예산배분 등 심의결과 요약

최종 선정된 지원서는 서로 유사한 수준의 예산안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사업비를 고려할 때 대폭적인 예산 조정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만 각 지원서의 상세 계획을 고려했을 때 사업 수행의 현실성 측면에서 소액의 차등 지급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정된 3건의 지원서는 모두 선명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의 열개도 상당히 유기적으로 구성되었으나, 전체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업안으로 전환하는데 신청자와 심의위원회 사이에 사업의 취지에 대한 약간의 시각 차이도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공간 구축의 규모와 형식 및 안전성, 자유표시구역 내 송출에 대해서 선정 이후 선정 단체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회 및 당부사항

사업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선정단체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획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선정단체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심의 발표 후 필요시 설명회 혹은 서면질의의 시행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수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나, 특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사항을 선정단체가 철저히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행정적 절차와 장치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각예술창작주체(공간) 프로젝트 지원 공모사업 심의위원 일동